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기부자·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참신한 사업 발굴

담양군은 기부자와 군민 누구에게나 공간을 끌어낼 수 있는 참신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담양군에 모인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4개다.

참여 대상, 공모 내용,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 공

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철원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역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군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의 가치 있는 사용을 위해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올해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및 퇴원환자 통합 돌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향촌공동육식센터 운영’, ‘청소년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 ‘상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강성국 기자

장성 “폐광산을 관광자원으로 재활용 방안 모색”

김한중 군수, 경기도 광명동굴 답사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개발계획 준비 ‘착착’

장성군이 시멘트 원료 석회석 채취가 중단된 지하 폐광산을 지역의 미래 관광자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장성군은 최근 김한중 군수와 관계자들이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의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테마파크로 변신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굴을 답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답사 당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김한중 군수 일행을 대상으로 시설을 소개하고 광명동굴의 개발 현황, 운영 방식, 향후 추진 예정 사업 등을 공유했다.

광명시 가학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광명동굴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께 금·은·구리 등을 채굴하기 위해 개발된 광산이다.

하지만 1972년 대홍수 당시 제련 과정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인근 농경지를 덮치면서 보상 문제로 폐광됐다.

이후 2010년 들어 광명시가 폐광을 매입해 ‘동굴 테마파크’를 조성한 결과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유명 관광지로 발전했다.

장성군도 광명동굴을 벤치마킹해



건동광산을 지역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결합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답사를 마친 김한중 군수는 “이번 광명동굴 답사가 고려시멘트 건동광

산 재활용 계획 구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군민과 전문가,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장흥,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8종 추가 선정

편백 독서대·힐링 테라피 이용할인권 등

장흥군은 최근 ‘2025년 제1회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4개 공급업체 8개 신규 상품을 답례품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답례품 재(再)기부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업체명)은 편백 독서대(장흥지역자활센터 친환경공방), 이로우미 스페셜세트·데일리 패드세트, 힐링 테라피 이용할인권(장흥군신활력플러스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편백 비누·치약세트, 편백 워터, 편백 나무도마(웅이), 잠곡세트(웅두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이다.

장흥군은 답례품 선정과 함께 공급업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증량’, ‘덤’, ‘기획상품 구성’ 등 기부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와 감독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답례품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화순 봄꽃 축제에 ‘핑크퐁 팝업 놀이터’ 뜬다

댄스파티 공연부터 체험 놀이터까지 아이들 위한 특별한 공간 마련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화순 남산공원 및 꽃강길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5 화순 봄꽃 축제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찾아온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함께하는 ‘핑크퐁 팝업놀이터’가 축제 기간 중 운영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핑크퐁 팝업 놀이터’는 남산공원 내 키즈존에 마련되어, 아기상어 에어발룬 포토존과 아기상어 에어바운스, 핑크퐁 소원 적기 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흥미로운 콘텐츠로 구성된다.

특히, 오는 26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핑크퐁과 아기상어, 튜튼뽀이 합

계 무대에 올라 아이들과 호응하는 핑크퐁과 튜튼뽀이 댄스파티 공연도 진행된다.

남산공원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축제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2025 화순 봄꽃 축제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과자집 만들기 체험 △키즈라라 직접 체험 △목공예 만들기 체험 △초롱꽃 만들기 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이 키즈존과 체험 부스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러한 체험들은 단순한 놀이나 관

람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배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조형체 관광체육실장은 “핑크퐁 팝업 놀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어린이 체험 콘텐츠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더욱 오래 머물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라며, “화순의 봄을 꽃과 놀이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의 장 ‘2025 화순 봄꽃 축제’는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콘텐츠로 한층 더 풍성한 봄날을 선사할 예정이다.

/화순=주유현 기자

영광, 60세 이상 군민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영광군은 14일부터 60세 이상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현 주소지가 영광군인 60세 이상(1965년생부터) 군민으로 최근 5년 이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자이며,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오전 방문(09:00~11:30)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한수원(주)한빛원자력 본부와 협약을 통해 일부 지원금을 지원 받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함평 나비대축제 앞두고 빈틈없는 안전 관리 총력

안전관리위원회 개최...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기관 협력 결의

함평군이 오는 25일 개막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2회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의 함평군수가 주재했으며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축제관광재단의 축제 세부 계획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세밀히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원들은 ▲행사 안전관리 조직 구성 ▲다중 운집 시 대응 방안 ▲비상 상황 대처 계획 등 축제 전반에 걸친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함평군은 축제 개막 전 관계 기관과의 합동 현장 점검도 함께 추진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모든 군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벽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평=지대만 기자

화순, 음식점 입식 테이블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 접수

화순군은 외식 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 현장 조사와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최대 120만원(자부담 50%이상), 경사로 설치에는 최대 80만원(설치비 포함)을 지원받으며,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지원의 제한으로는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와 국제·지방세 체납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연구용역 착수

군민 의견 수렴 등 7월 말까지 구체적 지급 기준 마련



영광군은 지난 10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수, 부시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본 연구용역은 국내 기본소득 제도 수립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연구소가 주관하며, 7월 말까지 영광형 기본소득 지급 모델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기본소득연구소는 단계별 과업 수행 일정, 국내외 사례 비교,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 공유부와 연계한 영광형 기본소득의 가능성 및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설

명했다.

송광민 부군수는 “영광군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용역사와 주관 부서는 영광군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과업 수행에 임하고, 천혜의 햇빛바람 공유부를 가진 영광군만의 이점을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을 잘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용역 수행의 방향 제시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주기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광=서종민 기자

